

생포 해적 5명 내달 1일 국내 이송

공군수송기 이용...부산지검·해경 수사본부 설치 삼호주얼리호 오만 입항여부 따라 지연될 수도

정부가 삼호주얼리호 인질구조 과정에서 생포된 해적 5명을 공군 수송기(C-130)로 이송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부산지검은 해적들의 국내 압송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맡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은 27일 "생포 해적을 민항기로 이송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공군 수송기를 이용하려고 한다"며 "오늘 오후 수송기가 출발해 내달 1일 정도 국내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군 수송기는 민항기보다 속도가 느리고 중간 기착지에서 급유도 해야 하기 때문에 왕복하는데 닷새정도 걸린다"며 "수송기 좌석도 해적들을 이송할 수도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삼호주얼리호의 오만 무스카트항 입항이 지연되면 해적들의 국내 이송도 늦어질 수 있다. 삼호주얼리호는 당초 27일 무스카트항에 접안할 예정이었지만 현지 정부로부터 입항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영함은 입항 허가를 받았지만 삼호주얼리호는 허가를 받지 못했다"며 "클린 스테이트를 주장하는 오만 정부가 범죄나 해적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삼호

주얼리호가 무스카트항에 입항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생포 해적의 국내 이송 수단과 방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부산지검은 해적들의 국내 압송으로 삼호주얼리호의 선사와 석해군 선

장의 주소지인 부산에서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대테러 등을 전담하는 공안부를 주력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경찰의 초기 조사 단계부터 진두지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들 해적이 해경에 인계되는 순간부터 국내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48시간안에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해적들의 신원확인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에 있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도 이날 김충규 청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4개반의 베테랑 형사 50여명으로 구성된 해적수사 특별수사본부를 설치, 본격적인 수사준비에 들어갔다.

수사본부장을 맡은 김 청장은 부산지방경찰청 형사·수사과장을 지낸 수사장으로 정경이 나있다. 수사를 담당할 팀장들도 1996년 한국인 선원 등 11명이 희생된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사건', 1999년 '텐유호' 실종사건 등을 다룬 경험이 있는 베테랑 형사들이다.



“석 선장은 2차 수술 후 회복중입니다”
한국 의료진이 27일 오만 살랄라 술탄카부스 병원에서 내외신 기자들에게 삼호주얼리호 석해군 선장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소말리아 해적 돈줄 막고 물자보급선 봉쇄해야”

美해군구성군 사령관 “바다 나가기 전 제압” 제의

미국과 동맹국들은 소말리아 해적이 바다로 나가기 전 육지에 있을 때 선제적으로 제압하는 식으로 작전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미 해군 고위 관계자가 26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사령관인 마크 폭스 중장은 이날 기자들과 조찬 간담회에서 소말리아 해적이 대형 선박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써 미군 등의 함정이 배치돼 있지 않은 더 먼 바다로 나가 해적질을 하는 식으로 바뀌었다며 이 같이

제의를 했다. 폭스 중장은 또 소말리아 해적이 국내 남부와 중부지방 대부분을 장악한 이슬람 반군단체 알-샤바브와 연계해 땀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해적에 대한 물자 보급선을 봉쇄하고 그들의 돈줄을 차단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

울일 것을 제안했다. 더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하기보다 테러리스트 소탕에 써 왔던 똑같은 전술을 해적 퇴치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폭스 중장은 “대(對)테러 작전의 일환으로 돈줄을 추격 봉쇄해왔듯 해적 퇴치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는 누구 ‘연구하는 법관’ 범조계 안팎 신망 두터워

5년만에 광주·전남출신 대법관 탄생 주목

27일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이상훈(55·사시 19회)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 내부에서 ‘연구하는 법관’으로 통한다. 특히 예리하고 해박한 법이론과 함께 소탈한 성격으로 선후배 판사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대법관에 임명되면 지난 2005년 김황식 총리에게 이어 5년여 만에 광주·전남 법조계에서 대법관을 배출하게 된다.

이 후보자는 30여년간 다양한 재판업무에 맡아 재판실무에 정통하고,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사법행정에도 매우 밝

는 평가를 받아왔다. 사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후배 법관에 대한 독려와 재판업무 지원에 앞장서는 한편, 소탈한 성격에 풍부한 유머감각으로 격의 없이 술자리를 즐기는 편이라 법조계 안팎에서 신망이 두둑하다.

법관 재직 중에 ‘다수주주권 남용에 대한 회사법상의 소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서울대 박사 학위를 받았고, 프랑스 유학 시절에도 꾸준히 논문을 냈다.

또 대전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검찰주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해 당시 검찰의 그릇된 수사관행에 제동을 건 일화는 유명하다.

이 후보자는 화니백화점 창업주인 고(故) 이연술씨의 사위로, 부인 이덕미(52)씨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으며, 강운태 광주지장과는 동서지간이다.

또 이광범(52·23회)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동생이고, 아들 화승(29·사시 48회)씨가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군법무관으로 복무 중이다.

▲광주 출신 ▲광주이고 ▲서울 대법대 ▲인천지법 판사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최경희기자 choice@

정부 행정보조인력 1% 탈북자로 뽑는다

행정안전부는 27일 탈북자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공공기관의 행정보조인력으로 채용하는 인원의 1% 이상을 탈북자로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탈북자 고용 계획이 담긴 ‘북한 이탈주민 정부 내 활용 계획’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연간 고용하는 행정보조인력은 2만여명이어서 올해 약 200명의 탈북자가 정부에서 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탈북자가 지역 고용센터나 하나센터 등에 취업을 신청하면 각급 기관과 연계해 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채용된 탈북자에게 전·현직 공무원 등을 멘토로 지정해주고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도 시행할 예정이다. 탈북자는 해마다 늘어 2013년 3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취업이 잘 안돼 국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 대표 ‘발실수’ 이유 막론하고 죄송”

한나라당 공식 사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26일 5·18 민주묘지 참배과정에서 희생자 묘지의 상석(床石)에 발을 올려놓아 물의(광주일보 27일자 3면)를 빚은 데 대해 한나라당 측이 사과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이유를 막론하고 상석에 발을 올려놓게 된 것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참배자 모두의 뜻은 진정된 추모를 위한 마음이었다는 것만은 알아주면 좋겠다”고 사과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안 대표가 왼쪽 어깨가 불편해 처음에는 오른쪽 손바닥 위에 올렸으나 관리소장이 두 손으로 감싸라고 해서 왼손을 올렸다 보니 몸이 비석 가까이 갈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상석을 밟은 것은 5·18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묘비의 상석을 밟는 행위는 실수라기보다는 기본 소양에 관한 문제이다”며 “변명하지 말고 깨끗하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최경희기자 cki@

감사원 “4대강 사업 20개항 처분요구 통보”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기존 하천사업과의 연계부족, 과도한 준설계획 등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 국토해양부 등에 통보했으며 그 결과 수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를 열고 ‘4대강 살리기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작년 1월25일 감사에 착수한지 1년 만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은 4대강 사업 이전부터 시행하

던 하천개수공사 등의 계획·설계를 4대강 사업으로 새로 고시된 계획홍수위 기준에 맞게 조정하지 않고 이전 기준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27개 공사, 79개 제방에 포함된 제방·호안설치 높이가 높게 시공될 가능성이 있어 공사비 422억 6000만원이 더 소요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총 20개 사항에 대해 국토해양부 등에 처분을 요구하거나 통보했으며, 영주다목적댐 공사기간 조정 등 10개 사항은 이미 조치가 완료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남성필러 세미나

창사 15년의 휴먼메디칼(주)는 지난달 식약청 허가를 득한 새로운 음경확대용 필러인 라이펜(Lipen)공급사업을 시작합니다. 아래와 같이 전국 의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시술 라이브와 함께 강의가 개최되오니, 꼭 사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펜의 장점

1. 음경의 길이증대효과와 둘레증대효과 및 안전성에 대해 검증 받은 '유일한' '남성확대용' 이식물질(KFDA인증)입니다.
2. 10분 이내 시술이 끝나므로 의사나 환자 모두에게 편리합니다.
3. 자가 콜라겐 형식으로 10년이상 효과가 지속됩니다.
4. 언제든지 보완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일시 및 장소

- ▶1월 29일(토) 오후6시 광주 KTX역사내 세미나실(태봉산실)
- ▶2월 7일(월) 오후8시 대구 KTX역사내 세미나실(교양실)
- ▶2월 9일(수) 오후8시 서울 KTX역사내 세미나실(4층 글로벌 대회의실)

- 20분 전에 입장하시면 도시락이 제공됩니다.
- 자료를 신청하시면 무료로 우편상담해 드립니다.
- 홍보기간에만 할인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세미나 참가 신청

· 휴먼메디칼(주) T. 02)572-1331, 3481-8108 · 늘푸른비뇨기과(종로3가) T.02) 2275-0075

영업에 관심있는 분은 humanmedi99@naver.com 으로 접수

휴먼메디칼(주) www.hmcl.co.kr

라이펜 음경확대의 특성 “반영구적으로 확대효과가 유지되는 비뇨기과 유일의 필러”

남성 후대용 식물과 똑같은 내여자

[꿈꾸는 공주]

내 여자가 장만에 화제다 얼굴이며 몸매가 모델을 뺀다는 얘기에 기가 막히게 웃으며 물어보니 할말 거리는 머릿결 보드랍고 발광거리는 피부 광택 이는 눈동자 가슴과 신체 부위가 실재한데 키는 1m50이 되며 체중이 40kg이던지 생선인지 헷갈린다. 본능적인 성욕을 해소하면 정신 건강에도 유익하고 "성"범의 예방도 되니 내여자가 인기 폭발로 불씨가 난다.

※ 8만원 상당의 선물과 후대용 가방도 드립니다.

인기폭발 “양코”

(식약청 USA 통관제품)

본 제품은 식약청 통관 미국 직수입품입니다. 30대부터 80대까지 지구력이 당당해 지므로 섭취하신 분이 다시 찾습니다.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농협 023-02-469931 정영철 생노병사 불노장생 책을 드립니다

1577-4101
010-8558-4114, 010-8952-4114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중·판결문·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새한신용정보(주)

062)232-7770, 010-4608-6061 (담당 : 김정수)